Workers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1 호 6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1 호 (225)

1963년 6월 (상)

차 례

공장 당 위원회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6차 전원 회의는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이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투쟁 행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공장 당 위원회 사업을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의 조치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서 당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다.

* *

오늘 공장 당 위원회 사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필연적 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당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특히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공업 부문의 당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취하여졌다.

공업에 대한 도 당 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 공장마다 담당 지도원제가 실시되였으며 큰 공장, 기업소들을 도 당 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였다. 또한 공장 당 위원회의 기구가 강화되고 그의 권한이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당적 지도가 공업 생산에 깊이 침투하게 되고 로동 계급 속에서 당 사업이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립된 후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 사업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났다.

공장 당 위원회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공장 내에 정연한 당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이 일층 강화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통하여 당의 군중 로선과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생기발발하게 움직이게 되였다.

로동 계급의 정치적 열성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그들은 혁명의 령도 계급으로서, 경제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높은 책임성과 자각성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대안의 사업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며 당 및 혁명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당이 취한 창조적 조치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무거운 혁명 임무와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공장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4차 당 대회가 제시한 전면적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고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북반부 혁명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 통일의 위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 력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혁명의 령도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전면적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로동 군중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 세포를 강화하며 그를 직접 지도하는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 사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우리 혁명 발전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공장 당 위원회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기본 방도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많은 당 위원회들이 축적한 경험은 현 시기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이미 창조하였고 생활에서 그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위원회들, 공장 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를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 체계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기술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규모가 대단히 커진 우리의 공업을 과거와 같이 몇몇 사람들의 《소총명》이나 성, 국의 행정 기술적 지도만으로써는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당은 공장 지배인의 행정 유일 관리제 대신에, 당원들과 대중의 의사를 가장 충분히 반영하는 집체적 지도 기관인 공장 당 위원회가 경제를 관리 운영하며 생산의 전 행정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경험은 바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에 의해서만 방대하고 복잡한 생산 기술 공정들과 그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며, 광범한 생산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며, 지배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조할 수 있으며 경제를 옳게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의 가장 커다란 우월성은 당 위원회가 공장 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장악한 기초 우에서 당 정책을 구체화한 정확한 투쟁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키잡이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공장 내의 전체 당 조직들과 당원들, 근로 단체들과 로동자 대중을 충분히 발동시킬 수 있는 데 있다.》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41 페지)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옳게 보장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그의 구성에 달려 있다.

당 정책을 견결히 수호할 수 있으며 공장 내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핵심들로 당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는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생산을 잘 알며 군중의 신망이 높은 로련한 일'군들과 진취적이고 새것에 민감한 젊은 일'군들, 로동자들과 기술 일'군들을 옳게 배합하여 당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령도를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 담보이다.

경제 지식이 부족한 동무에게 경제 지식을, 정치 지식이 부족한 동무에게는 정치 지식을 배워 주어야 하며 로동자에게는 기술을, 기술 일'군에게는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위원들을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기술도 알며 군중 공작 방법도 아는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일'군으로 교양할 것이며 구체적인 분공을 통하여 그들이 항상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 위원회들은 사업에서 주관과 독단, 우연성과 일면성을 극복하고 자체의 집체적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

공장 당 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는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공장 내의 일체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사업을 대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당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해당 공장의 정치적 령도 기관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행정 경제 사업을 방향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이에 방법적 지도를 결합하여야 한다.

《키잡이》란 행정을 대행하거나 그의 뒤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

즉 당 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력량을 포치하고 분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일단 포치한 사업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군중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대책을 그들과 토의하고 군중을 발동해서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군중 속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부단히 반복함으로써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가 키를 바로잡아야 당 사업도 행정 경제 사업도 원만히 보장될 것이며 모든 고리와 단위들, 매개 일'군들이 보다 책임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의 주되는 과업은 생산을 옳게 지도하는 것이다.

생산을 떠난 공장 당 위원회의 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행정을 대행하지 말라 하여 생산에서 손을 떼거나 물러 서는 경향은 철저히 근절되여야 하며 당 위원회의 주되는 력량을 생산에 집중하여야 한다.

공장 당 위원회는 또한 로동자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부단히 교양 훈련하고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령도 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할 것이며 로동 계급의 우수한 간부들을 부단히 육성할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공장 당 위원회들의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의 군중 로선과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며 생산자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혁명 과업 수행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주인은 공장 당 위원회이며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이다. 공장의 주인들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그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불러 일으킴으로써만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장 당 사업 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고 당 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당원들과의 사업, 로동 군중들과의 사업이 당 위원회의 기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당 위원회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본 요구에 따라 당원들 속으로, 로동자들 속으로 들어 가 사업을 배워 주고 도와 주며 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당 세포와 분조의 전투력을 높이고 있으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고 군중의 창조적 열성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는 산하 당 조직을 움직이고 당 조직은 당원들을 움직이며 당원은 비당원을 움직이는 사업 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이 모든 력량을 당 정책 관철에로 한 사람 같이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당 위원회 부서 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산하 당 조직들과 당원들 속에서, 군중들 속에서 사업하면서 당원들과 군중들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 주며, 사업을 의논하고 걸린 문제를 함께 풀어 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 위원회 부서 일'군들이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도 알고 기술도 알며, 군중 공작 수준도 높아야 산하 당 조직들의 사업을 원만히 도와 줄 수 있으며 당원들과 군중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전원 회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 시기 당 위원회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일'군들 속에서 혁명가적 사업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실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당과 인민은 수 많은 재산과 로력, 방대한 살림살이를 당 위원회와 그 지도 일'군들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의 당원들, 특히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의 운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하며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머리를 짜고 이악하게 노력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아파하고 걱정할 때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여질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당 위원회들과 그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꾸준하고 세심하여야 하며, 과학적 타산이 있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동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관철하는 사업 기풍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고 군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겸손하고 검박하여야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 군중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당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의 책임 간부들은 누구보다도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여야 하며 부단히 학습하고 부단히 연구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상하가 소통되고 지도와 대중은 더욱 밀접히 결합될 것이며 맡겨진 혁명 과업은 성과 있게 수행될 것이다.

오늘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 앞에 부과된 임무는 실로 중요하다.

각급 당 위원회들과 공장, 기업소 당 위원회들은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과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결론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새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에서,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는 투쟁에서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리 성 근

최근 우리 당은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계급 의식을 높임에 있어서 혁명의 적을 증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측면이다.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혁명의 적을 철저히 증오하게 되며 또한 혁명의 적을 철저히 증오하고 그와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은 조국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적을 증오하고 그와 투쟁하는 것은 결국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 교양의 강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애국주의 교양의 강화 문제를 제기하며 애국주의 교양의 강화는 계급 의식을 높이며 계급의 헌신적 투사가 되도록 방조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란 사회주의적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전취하며 그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이미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빨찌산들—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전통이 확립되였다.

그들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조국의 광복과 이 땅 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실현하려는 투쟁에서 표현되였다.

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오늘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전 사회적, 전 군중적 성격을 띠고 발현되며 발전되고 있다. 수천 수만의 천리마 기수들이 자기 마을, 자기 향토를 잘 꾸리며, 자기의 공장, 자기의 농장을 잘 관리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위훈을 떨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불가분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본질 상 국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경이 있고 민족이 있는 한 혁명은 민족 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애국주의 교양을 통하여 매개 나라에서 혁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제 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로 된다. 즉 매개의 민족 프로레타리아트

는 우선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적인 발전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게 되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을 지원하게 된다. 달리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참된 애국자는 참된 국제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는 또한 곧 애국주의자로 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중요한 과업은 우선 우리 나라 자체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자각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애국적 의무이며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선집 제 5 권, 237 페지)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과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주의 교양의 강화는 계급 교양의 강화와 더불어 혁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는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민족은 자체의 민족적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력사,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영웅적인 민족으로서 자체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 많은 과학, 예술, 문화적 재보를 남기였다. 우리 민족의 명성과 지혜는 일찌기 널리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 민족의 재능과 지혜는 특히 해방 이후, 로동당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였으며 자체의 혁명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 혁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단시일 내에 끝마치였다. 우리 인민은 세계에 《최강》을 자랑하던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으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여 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행복의 락원을 마련하였다.

과거 조국이 없고 주권이 없을 때 우리 인민은 상가'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을 찾았고 주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음으로 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혜와 재능을 조국을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양하고 있다.

좋은 제도 밑에서, 인민의 사랑과 지혜로 하여 아름다운 금수 강산은 한결 더 빛나고 있으며 그 무진장한 자원은 더욱더 효과 있게 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은 최대의 번영의 시기에 처하여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 로정과 그 성과는 세계를 경탄케 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리마의 나라》, 《영웅적 인민》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의 성과와 경험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각국 인민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투쟁 성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민족적 번영의 시기를 마련해 준 영광스러운 당, 현명한 수령을 가진 데 대한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이것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긍지이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공민으로서의 긍지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이것은 또한 아름답고 은금 보화 가득하고 살기 좋은 조국 땅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이다.

현명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게 되였고, 주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아름다운 강토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 높이

자기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미국놈들을 내몰고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하며 전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고도의 창조적 열의와 로력적 앙양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조국을 더욱 부강 발전시킬 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 조국의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력사와 문화, 지리에 대한 인식을 옳게 주어야 한다.

자기의 것을 잘 모르고서는 그에 대한 사랑도 긍지도 나올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알게 해야 하며 또한 우리 나라의 지리를 잘 알게 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선집 제 4 권, 326 페지)

조국을 아는 데 있어서 과거 력사와 문물을 알아야 더 잘 알 수 있으며 그래야 오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조국을 잘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이게 하는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주체와 자력 갱생의 립장을 가지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주체와 자력 갱생의 립장—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립장이며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체적 립장에 서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주체의 사상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왔으며 또한 주로 우리 인민 자신의 힘을 동원하여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국방력을 강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립장을 확고히 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혁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가장 철저하게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상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력 갱생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나라의 독립과 정치적 자주의 기초로 된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국가의 륭성을 기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계속 향상시킬 수 없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 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살려는 것은 공산주의자-애국자의 태도가 아니다. 외국의 경제에 의거할 때 나라의 자주권을 원만히 행사할 수 없고 자기 문제를 결심한 대로 해결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자립적 경제를 건설하며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질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전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신의 힘을 철저히 믿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복구 건설에 주저 없이 달라 붙었으며 자체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 지혜를 동원함으로써만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 축성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조국의 운명에 있어서 참으로 고귀한 혁명적 전취물이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되였으며 대담한 결심과 과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산력을 부단하고 급속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짐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인민 생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부단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또한 나라의 정치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신은 제고되였으며 대외적으로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남반부 인민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더욱 더 삶과 희망의 등대를 보게 되였다.

우리는 7 개년 계획—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닦아진 자립적 경제의 토대 우에 튼튼한 자립적 경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창의 창발성을 내며, 필요한 것은 찾아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여 기술을 발전시키기에 적극 노력할 때 전면적 기술 혁명의 숭고한 혁명 과업은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고 우리의 발전을 촉진시킬 튼튼한 지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투쟁을 더 잘 하는 데서 우리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성이 발휘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공장과 기업소, 밭과 산림, 강과 바다-모든 것이 인민의 소유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당이, 우리 일'군들이 맡아 가지고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우리 일'군들에게 의탁하고 있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립장에서 얼마나 그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돌리는가에 의하여 인민 생활의 개선 문제가 결정적으로 좌우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태도에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고 알뜰하게 꾸려 나가도록 교양해야 한다.

창성과 벽동, 삭주, 북청 등지에서의 경험은 일'군들이 인민들의 살림에 대하여 참으로 아파하는 립장에 서고 인민들을 부단히 교양하고 살림을 꾸리는 사업에 옳게 조직 동원한다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창성, 벽동이라면 옛날부터 두메 산'골로 유명한 곳이였고 사람 못 살 곳으로 알려진 곳이였다. 그러나 그 곳 일'군들이 산을 잘 리용할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 관철에 떨쳐 나선 결과 수년 내에 군의 살림살이를 참으로 몰라 보게, 그 어느 벌방 부럽지 않게 꾸려 놓았다. 곳곳마다 지방의 원료 원천에 립각하는 공장들이 일떠 섰고 산에는 철따라 약초와 과수

들이 무르익고 있으며 양떼들이 구름처럼 흐르고 있다. 사람들의 살림은 풍요해졌고 흥겨워졌다.

창성, 벽동이 이러할진대 우리 일'군들이 살림을 더 잘 꾸리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 자신들이 노력만 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 수 있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풍부하고 다종 다양한 자연 부원이 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더 잘 리용하는 데 있다.

우리는 과거 조국 없는 식민지 민족으로서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일하던 습성으로 하여 아직도 자기의 것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을 더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면에서 부족점이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되는 대로 하고 되는 대로 살자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뿌려 놓은 사상이다. 그 놈들은 조선 사람에게 자기의 강산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가 아니라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망상곡이나 부르며 돌아가는 퇴페하고 절망적인 사상을 불어넣었다. 이것은 위험한 패배주의 사상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이러한 사상적 독소를 완전히 빼 버리고 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선집 제 6 권, 254~255 페지)

우리는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되는 대로 일하며 살려는 사상과 철저히 투쟁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살림을 더 잘 꾸리기 위하여 생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고 창발성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가 기업소들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설비와 기계들을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있는 설비와 로력으로써 더 많은 것을 생산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가까운 년간 내에 종업원 1 인당 생산량을 2 배 이상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인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의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에 관심을 높이고 종업원 1 인당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로, 보다 행복한 지상 락원으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애국주의는 이를 위한 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최 상 순

오늘 세계는 아세아와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제도가 총 붕괴되고 있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다.

제 2 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미 40 여 개의 나라들이 식민지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 지구 상의 수억만 인민들을 횡포하게 략탈 착취하던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고 식민지 체계가 총 붕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피압박 인민들이 쟁취한 거대한 승리이며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매우 귀중한 사변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주의를 포기하였고 그들의 정책에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라도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에 광분하고 있다.》(1960년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정책과 그를 미화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신식민주의 《리론》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식민주의의 새로운 수법

신식민주의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구식민주의와는 달리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형식 상의 정치적 독립을 승인하면서 간접적인 형태와 방법으로 지배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라는 간접 통치의 형식을 전면에 들고 나오게 된 것은 식민지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의 각성, 그들의 해방 투쟁의 급격한 앙양과 식민주의자들에게 더욱 더 불리하게 조성되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다.

물론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그러한 간접 통치의 방식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는 아직 제국주의자들이 포화와 총검으로 공공연한 식민지 통치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어떠한 반항도 폭압으로써 야수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일떠 선 수억만 인민들의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력만으로써는 진압할 수 없게 되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식민지를 유지

하기 위해 세계적 규모에서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오늘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자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 신식민주의의 은폐된 수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어 말할 수 있다.

1) 락후한 나라들에서의 괴뢰 정부의 조작
2) 《후진국》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형태의 《원조》와 직접적인 자본 수출
3)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평화군》의 파견
4)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예속적인 쌍무 협정의 강요, 국제 련합의 결성 등등.

신식민주의자들은 괴뢰 정부의 조작, 《원조》와 자본 수출, 《평화군》, 각종 조약이나 협정, 련합의 결성 등 그 본질에 있어서 구식민주의자들의 정책과 다름 없는 이러한 수법들로써 락후한 나라들의 정권을 틀어 쥐고 자기들의 의사에 복종시키고 있으며, 경제를 예속시키고, 그 나라 인민들 속에서 자기들에 대한 숭배 사상을 고취하며 모든 분야에 걸치는 통수권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지배에서 제일 편리한 것은 이 나라들에 총독을 두어 직접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골적인 직접 통치를 할 수 없게 된 조건 하에서는 괴뢰들을 내세워 그들에게 정권을 넘겨 주는 것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것은 해방된 나라 인민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 자주권이라도 부여되고 있는듯한 외관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분야에 걸치는 본국 정부의 지도적 및 통제적 역할을 보존할 수 있다.

이로부터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독점 자본의 빵 부스러기로 신생 독립 국가나 기타 후진국들에서 그들의 앞잡이를 대량적으로 길러 내고 있으며 종족 상층부의 대표자들, 토호, 일부 부르죠아지, 원주민 인테리중 서구라파화된 자들, 반동적 군부 상층, 교회 전도사들을 매수하고 있고 이러한 괴뢰들을 이 나라들의 정권에 들어 앉히고 있다. 그들은 이를 위하여 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락후한 나라 정부나 개별적인 지도자들을 위협 공갈하고 있으며 테로와 암살도 서슴 없이 감행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써도 괴뢰 정부를 조작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동들을 사촉하여 직접 군사 정변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공연한 무력 간섭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다.

라오스의 실례는 그것을 잘 보여 준다. 미제는 1954년 3월에 수립된 중립주의적인 수반나 푸마 내각을 악랄한 책동으로써 반동 친미 분자인 카타이 사소리트 내각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애국 력량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제 2 차 수반나 푸마 내각이 수립되고 1957년 11월에는 련립 정부가 형성되자 당황한 미제는 1958년 8월 친미 주구들을 사촉하여 그것을 전복하고 그들의 괴뢰인 사나니코네 도당을 정권에 들어 앉혔다. 1960년 다시 수반나 푸마 내각이 수립되자 미제는 푸미 노사방을 사촉하여 사반나케트에서 분움과 함께 반동적 《혁명 위원회》를 조작하고 내란을 도발케 하였으며 오늘까지도 무장 인원들을 파견하고 간섭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1953년 이란에서의 군사 독재의 수립, 1958년 타이에서의 군사 정변에로의 반동의 사촉, 도미니카에서의 수차에 걸치는 군사 정변 음모와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 간섭 등 수 없이 렬거할 수 있다.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의하여 적지 않은 《독립》 국가의 정부들이 오늘 실제적으로는 제국주의 렬강의 식민지 통치 기구로 되고 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신식민주의자들은 또한 일방으로는 이미 정치적 지배가 확립된 나라에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며 타방으로는 그렇지 못 한 나라들에서 점차 정치적 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사실 상 정치가 경제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 만큼 정치적 지배는 경제적 예속을 기초로 할 때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예속은 그 자체가 곧 정치에서의 예속을 낳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들의 이른바 경제 《원조》나 자본 수출은 바로 그러한 경제적 예속의 도구이다.

《원조》가 경제적 예속의 수단이라는 것은 《원조》 자금에 의한 상품 구입 국가의 지정, 《원조》 물자의 구성, 《원조》 자금의 투자 대상 등에서도 명백히 표현된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부대 조건으로서 《원조》 물자 판매 대금으로 어느 나라에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조》를 받는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나라들의 무역을 독점하며, 자국의 잉여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원조》를 통해·국제 시장 가격보다 1.5~3 배 비싼 값으로 《혜택을 받는 나라》에 강매 수출을 일방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부등가 교환으로 후진 국가들이 입는 손실만 해도 1년에 약 140억~160억 딸라나 된다.

《원조》 물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후진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계, 설비가 아니라 자국의 잉여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잉여 농산물이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소비품들이 후진국에 범람할 때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가 그와의 경쟁에서 몰락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미제는 이와 같이 하여 민족 경제를 파괴하는 한편 《원조》 자금의 투자를 원료, 반제품 생산 부문에 집중케 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를 기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에 철저히 의존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직접적인 자본 수출도 방대한 규모로 증대시키고 있다.

전후 미제의 대외 투자는 약 4 배로 증가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채광업과 석유 채취업에 가장 많은 비중이 돌려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의 3 분의 2가 우라늄, 코발트, 탄타늄 등 전략 광석 채굴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1956년 현재로 약

45%가 석유 채취업과 채광, 제련업에 투자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의 《혜택》을 받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오늘 거의 다 한두 가지의 농산물이나 광물 생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일 경제로 되고 있고 그 부문들은 대부분 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은 지금 소요되는 거의 반수의 아연과 100%의 석, 95%의 니켈, 40%의 바나나, 63%의 코코아, 87%의 커피, 55%의 사탕을 이 나라들로부터 가져 오고 있으며 한 해에도 9억 딸라 이상(1961년)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경제 《원조》나 자본 투하가 그 나라들의 경제를 기형화하고 이 나라들을 전적으로 그들의 원료 공급지로, 상품 판매 시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반항심이 강한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상술한 바와 같은 정치적 및 경제적 침투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그러한 침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다한 척후병들과 특무들을 신생 독립 국가들에 파견하고 있다. 미제의 《평화군》과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른바 《고문》, 《전문가》, 《사절단》들이 모두 그것이다.

오늘 아프리카에는 1,000 명이 넘는 미국의 《평화군》이 파견되여 있으며 벌써 오래 전부터 1,000 명의 《전문가》들과 500 명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교관의 신분을 가진 방대한 수의 《대공사관원》들이 사업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1959년에 가나에는 미국 대사관원이 10 명이 있었는데 1960년에는 100 명으로 되였으며 콩고 사변 직전에는 콩고 주재 미국 대사관원이 일약 2,000 명으로 격증되였다.

케네디는 《평화군》이 마치도 신생 독립 국가들에 《미국의 문명》을 전파하기 위한 문명의 사도인듯이 가장하고 있자만 이들이야말로 괴뢰 정부에 들어 앉힐 미국의 주구를 길러 내고 토착 주민의 상층부를 매수하며 정부 전복 음모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특무들이며 이 나라 인민들 속에서 반미 감정을 해소시키며 숭미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척후병들인 것이다.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오늘 이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유에스 뉴스 앤드 리포트》지는 《평화군 용사들이 할 일이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해 온 것》과 다름 없으나 《종교 활동과는 될수록 련계를 피하고》 《선교사들이 개척하기 어려운 〈처녀지〉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썼다.

현 시기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방면에 걸친 락후한 나라들에 대한 통수권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며 그들의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특히 쌍무 협정이나 국제 련합들을 광범히 리용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을 조작하고 차관을 얻기 위한 부대 조건으로서 성원국들로부터 사전에 《사업 계획》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불란서와 서부 독일도 락후한 나라들을 《구라파 공동 시장》의 《준성원국》들로 참가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탄카니카, 우간다, 케니아, 잔지바르가 《공동 시장》의 《준성원국》으로 되기를 거절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진보를 위한 동맹》과 《공동 시장》 뿐만 아니라 《중미 경제 통합》, 《불란서 공동체》, 《나토》, 《쎄아토》, 제국주의자들이 그 결성을 설교하고 있는 《대서양 공동체》, 《말레시아 련방》도 모두 식민주의의 하나의 수단이다.

신식민주의자들은 이 밖에도 《분할 통치》, 《통합 통치》, 유엔의 리용 등 각양한 형태의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방법들은 모두가 각이하고 표면 상으로는 《원조》와 《선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구식민주의와 동일하며 다만 그것이 더욱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신식민주의 《리론》

현대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일어 나고 있는 조건에서 그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으로 신식민주의를 정당화하며 미화하기 위한 《리론》들을 류포시키고 있다.

《후진국 개발론》이니, 《진공 리론》이니 또 《제국주의와 후진국 간의 의존성》 리론이니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각종 허위적 《론거》들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론자들은 우선 식민지와 신생 독립 국가들의 혹심한 사회 경제적 락후를 사회적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기술, 경제적 원인 또는 전통, 관습, 민족의 기질 등에 의한 것인 것처럼 설교하고 있다.

녀시는 식민지나 락후한 나라들인 《후진국》을 저개발국이라고 하면서 그 인구와 천연 자원에 비해 자본의 장비가 과소한 나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쉬만은 저개발국이란 경제 발전의 방향으로 인적, 자연적 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활용하고 촉진하는 조직을 갖지 않은 나라이라 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나라의 생산력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우선 생산 관계에 기인된다. 이 나라들도 결코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 경제적 락후성은 우선 식민지적 착취 관계, 경제 구조에서의 혹심한 기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미국 독점 자본이 매년 착취하는 리윤이 평균 4억 딸라나 되는데 이것만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돌려진다 하여도 많은 공장들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생산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식민주의자들이 략취하고 있는 리윤을 이 나라들에 돌리면 얼마나 많은 생산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식민주의자들의 착취를 청산하여야 한다.

녀시나 허쉬만이 사실을 외곡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의 세기적 락후성의

장본인이 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은폐하며 진실한 출로를 찾지 못하게 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주의를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들의 침략 정책의 리론적 근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실 신식민주의 리론가들은 이러한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문제의 초점을 이 나라들에서의 자본의 형성과 투하에 귀착시키고 있다.

이들은 《후진국 개발》을 위하여서는 방대한 자금이 요구되는데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민간 자금을 동원하며 절제를 확립하며 유휴로동력을 활용하며 인플레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국내 저축으로서는 전부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싱거, 넉시 등이 바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일류트나 스테이레이는 보다 기만적인 형태인 《원조》의 필요성을 력설하고 있다. 일류트 같은 자는 《후진국 개발》을 위한 서구의 《원조》가 너무 적다고 하면서 미국의 《원조》를 현재의 2 배 내지 3 배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식민주의의 주요한 수법으로 되고 있는 《원조》와 자본 수출을 미화하며 정당화하기 위한 《리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부르죠아 리론가들은 자본 투하에 있어서도 전략 산업 부문이나 농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업화를 운운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경공업 중심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허쉬만은 저개발국에서는 발전 거점이 될 전략 산업 부문을 정하고 이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음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유발 투자(誘發投資)를 일으키는 보충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바이너는 후진국들에서의 경제 발전을 《자연 지세》에 맡겨야 하며 국가 보호로 공업의 무리한 육성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농업이 유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농업이 곧 빈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는 농업국이면서도 부유하다는 데 론거를 두고 있다. 그의 근거는 또한 국제 분업의 견지에서 가장 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 산업 부문이 경제 발전의 거점으로 될 수 없으며 그러한 부문이나 농업의 육성만으로써 전반적인 생산력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 수단 생산이 우선적으로 발전하여야 하는 만큼 이 나라들에는 강력한 중공업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강력한 중공업이 없이는 경제적 자립도 공고한 국방력도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산업 부문이나 농업 혹은 경공업의 발전을 극구 설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발전의 거점》이니 《국제 분업》이니 하면서 이 나라들을 자기들의 원료 공급지로 남게 하고 경제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을 정치적으로까지 지배하며 원료가 값싼 국제 시장 가격에 의한 교역을 통하여 착취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며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후진국 개발론》이니 뭐니 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극력 미화하면서 식민지적 착취 관계를 영구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에 전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식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활하고 음흉한 음모들을 꾸미고 있고 인민들의 민족적 투쟁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추악한 시도들을 다하고 있는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과의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말 것을 식민지 및 신생 독립국가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들에서 필연적으로 구축 당하고야 말 것이지만 결코 자기의 지배를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는다. 식민지 시장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사활적인 문제이다.

쿠바 혁명의 실례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이 자유로운 민족적 발전을 지향하기만 해도 그것을 《공산주의 위협》으로 몰면서 그의 자립적인 발전을 각 방면으로 저해하며 지어는 직접 무력으로 소멸해 버리려고 책동해 나선다.

식민지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은 자주권을 침해하고 자기의 지배를 결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신구 식민주의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완전한 해방을 쟁취할 수 있으며 정치적 독립을 일층 공고히 할 수 있다. 구걸이나 호소로써는 그 어떤 자주권도 달성할 수 없으며 더구나 식민주의자들과 식민지 인민들 간의 평화적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경험은 오직 인민들이 자기의 혁명적 무장, 모든 애국적 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한 투쟁만이 신구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 버리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며 그를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항상 모든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물론 식민지 시장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 간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민족적 독립과 그것을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반대하며 진압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서로 련합한다.

콩고의 모든 사변은 이것을 잘 실증하여 준다. 미국 독점 자본은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독점적 지배 하에 있던 콩고의 《중요한 전략 자원이 미국의 리익에 봉사》하도록 강요하면서 이 나라 경제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 와서는 미국 독점 자본이 벨기의 지배를 위협하면서 콩고 코발트 광산의 거의 전부와 우라늄 광산의 90%, 탄타늄의 79%, 망간의 64%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콩고 인민의 민족적 영웅 파트리스 루뭄바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고 애국 력량을 진압함에 있어서는 미제국주의자들도 벨기의 구식민주의자들과 공동 전선을 취하였다.

이것은 신구 식민주의자를 구축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어느 개별적인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련합된 세력을 반대하여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식민지 멍에를 벗어 던진 나라들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봉건적 잔재와 제국주의적 유물을 청산하는 한편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치적 독립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자립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어느 나라에도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인 대내 대외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쟁취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며 식민주의의 경제적 침투를 배격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식민주의자들이 류포하고 있는 각종 기만적인 선전과 그들의 은폐된 식민주의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민들이 식민주의자들의 간교한 술책과 기만적인 허위 선전의 진의도를 명백히 인식하게 될 때 동요함이 없이 그들과의 투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더욱더 분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민족 전선을 형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 전선은 식민지 및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며 사회적 진보를 보장하는 데서 위대한 힘으로 된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세기적 락후성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인민 대중의 생활 조건을 급속히 개선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직 하나—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길이다.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인민들은 착취와 빈궁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될 수 있으며 문명하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온갖 투쟁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무력으로써까지라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여 주는 것은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이며 보상 없는 그리고 지체 없는 식민지의 해방을 단지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요구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자결권의 인정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야말로 단호하게 이 나라들의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민족 해방 운동의 가장 혁명적인 요소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 강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폭동을—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혁명 전쟁도—원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집 제 22 권, 195 페지)

식민지가 락후한 나라의 피압박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일떠 서고 모든 공산당과 로동당들이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이러한 민족적 투쟁을 적극적으로 원조할 때 이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은 완전한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심각한 새 위기에 빠져 들어 가는 미국 경제

박 순 재

1

최근 미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형편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새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징조를 보여 준다.

케네디는 자기의 대통령 취임 첫 1 년간 경제가 약간 회복되는 징조가 나타나자 미국에는 호경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중한 경제적 위협이 다가 왔다.

도래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표징은 우선 최근 수개월 간에 미국의 공업 생산 장성 속도가 답보 또는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 심히 감소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반적 경제 지수 곡선은 미국 지배층의 온갖 장담과 예언과는 달리 완전히 수평 상태에 있으며 1962년 말부터는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1960~1961년 위기 직후인 1961년 3 월부터 《비교적 급격한》 활기 증진이 시작되였지만 위기 전의 지수를 회복한 그 해의 7월에는 벌써 그 《증진》 속도가 저하되였으며 1962년 하반년에는 공업 생산 지수가 118~119 계선에서 답보를 계속하다가 년말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공식 통보들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1962년 11월의 지수가 119.5 였는데 금년 2월에는 119로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일부 기간 공업 부문의 생산은 총 곡선보다도 더 급하게 하강하고 있다. 금년 1월의 강철 생산량은 작년 1월 수준으로 축감되였다. 제강 공업과 함께 자동차 공업과 건축 공업에서도 사태는 마찬가지이다.

미국 경제의 3 대 기둥이라고 하는 강철, 자동차 및 건설 부문에서의 계속되는 침체와 하강은 비록 일부 분야에서 경제 회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경제의 심한 불안전성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는 실업계의 전반적인 투자 의욕의 퇴조에서 표현되고 있다. 1962년의 주'가 폭락 이후 가을에 있었던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로 인하여 미국의 주'가는 약간 회복의 기운을 보이였으나 이제는 그 기운마저 잃고 있다.

1961년 말에 154에 이르렀던 주'가 지수는 1962년 6월에 118로 떨어졌으며 최근 수개월 간 계속 120을 오르내리고 있다.(《유엔 통계 월보》 1962년 12월 호)

이러한 현상은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을 전반적으로 감퇴시켰다.

지난해 4.4 분기의 고정 자본의 투자는 년률 384억 딸라였는데 금년 1.4 분기의 투자는 년률 377억 딸라로 축감되

였다. 설비에 대한 투자의 감소는 다음 단계의 생산을 더욱 축감시킬 전제 조건으로 된다.

새 위기는 다음으로 취업률에서의 더욱 《엄중해지는》 침예성과 실업 대군의 급속한 장성에서 표현되고 있다. 케네디는 자기의 금년 일반 교서에서 지난 1년간 취업자 수가 약간 증가한 것을 크게 강조하였으나 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에 비한 취업자 수의 상대적 저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하반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 수는 금년에 이르러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년 1월 이래 증가된 실업자 수만 해도 100만 이상이나 되며 로동 능력에 대한 실업 비률은 1962년 7월의 5.3%로부터 현재 7%로 늘었다.

이상과 같은 제 현상 외에도 신규 주문의 감소, 기존 주문 파기 건수의 급격한 증가, 공업 상품 도매 가격의 폭락, 파산 건수의 격증, 대외 무역의 축감 등 새 위기를 증시하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이미 새로운 경제 위기의 첫 단계에 들어 섰으며 엄중한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재무 장관 딜론도 《1963년에 생길 위협이 엄중하다》(《뉴스 위크》지 1962년 11월)는 것을 인정하였다.

2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징조들은 다가오는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며 파국적인 성격을 띠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란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이 파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인바 그 파괴력의 경중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다.

오늘 미국이 처한 새로운 대외적 및 대내적 형편은 도래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파국성을 조건 짓고 있다.

그것은 우선 미국 경제의 진동이 다른 중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미 겪고 있거나 시작되고 있는 전면적 위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2차 대전 후 네 차례에 걸친 위기를 겪었는데 제3차 위기를 제외한 위기들은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을 동시에 포괄하지 않았다. 영국, 벨기, 서전 등은 1957~1958년 대위기를 겪은 외에 다만 한 번의 소위기를 겪었는데 그것도 미국의 위기와는 때가 다른 1951~1952년에 겪었던 것이다. 서독, 일본, 이태리, 오지리, 불란서에서는 소위기가 거의 없었고 1957~1958년 대위기도 약하게 반영되였을 뿐이다.

그러나 금번 위기는 사정이 다르다. 1957~1958년에 약간의 답보 현상만 보인 후 계속 《번영》해 왔다는 일본에서는 1962년 봄부터 생산 과잉 현상이 방직, 제강, 기계, 화학 공업 등에 확대되여 벌써 7월부터는 생산 지수 곡선에서 급한 하강이 시작되였다. 1962년 9월 현재 수준을 볼 때 강철은 9개월 전에 비해 16%, 석탄은 7개월 전에 비해 15%나 축감되였다.

영국에서는 1961년부터 투자가 급격히 감소되고 파운드 위기에 뒤따라 1961년 하반년에 공업 총 생산은 4%나 떨어졌다. 그 후 이 하강이 일시 중단되였으나 이해 말부터 생산이 또다시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조업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실업자 수는 20년래의 최고 수준을 돌파하여 거의 100만 명 계선에 이르고 있다.

서독 경제에서는 1961년부터 이 나라가 오래 동안 떠들어 오던 《기적》이 사라지고 자본 투자가 감소되였으며 그의 장성 템포도 떠지기 시작했다. 1962년 강철 생산량(추산)은 1960년에 비해 5%가 낮으며 석탄 생산량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주권 시세 역시 폭락되고 있으며 수출 무역도 축감되기 시작했다.

이태리, 불란서, 화란, 벨기, 서전, 오지리 등 나라들에서도 경제 곡선의 하강이 나타났거나 상승의 정지 또는 답보 단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 위기가 1957~1958년 위기처럼 세계적인 것이면서도 더욱 광범한 나라들을 휩쓸고 있으며 극히 엄중한 것으로 발전하리라는 충분한 근거를 주고 있다. 아직 이 위기에 휩쓸려 들지 않은 나라들을 놓고 말한다면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에 의하여 그의 진입 시기가 약간 늦어질 뿐이며 그 진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위기의 동시성은 필연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호상 복잡한 련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미국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위기의 출로를 쉽사리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선행 위기들과 구별되는 특성의 하나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그 어떤 개별적인 부문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들에서 동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쇠퇴 현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난 가공 공업에서 지난해 1.4 분기의 월 평균 지수(1958년=100)는 124, 2.4 분기에는 128, 3.4 분기에는 126, 4.4 분기에는 121이였는데 금년 1, 2월에는 119로 떨어졌으며 채취 공업에서는 같은 기간에 108, 111, 109, 105, 101로 변화하였다.

특히 제강 공업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년 3.4 분기의 월 평균 강철 생산량은 그해 3월에 비하여 36%나 감소되였으며 조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강철 공업에서의 조업률은 작년 7월에 45%까지 감소되였으며 3.4 분기에 도달한 평균 53%의 낮은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석탄 생산은 1.4 분기와 2.4 분기 간에 큰 변화 없이 답보를 하다가 3.4 분기에 10% 이상 낮아졌으며 그 후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4.4 분기에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건축 공업에서도 꼭 같은 정형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4.4 분기 초까지 건설 실적이 증가된 이후 추세는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공업에서 호경기에 처했다고 하는 부

문은 군수 공업, 특히 이와 관련된 약간의 특수 공업들 뿐이다.

공업에서의 위기는 심각한 농업의 위기, 금융 및 신용 위기와 뒤엉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 위기는 채취 공업의 쇠퇴와 함께 엄중한 원료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농업은 장기간에 걸치는 생산 과잉 위기로 인하여 지금 격렬한 도태 과정에 놓여 있다. 가장 작은 농업 경리 단위인 가족 농장들과 중 소 규모 농장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기계를 가진 대농장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농장수의 변동

(2월호 《문슬리 레뷰》지에서)

년간 농산물 판매액으로 본 부류(딸라)	1954년 농장수	1959년농장수
0—2,500	2,681,000	1,638,000
2,501—9,999	1,519,000	1,272,000
10,000—이상	583,000	794,143
계	4,783,000	3,704,143

이러한 변화는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1962 년도 계산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농장수는 340만 개인데 이것은 5 년 전에 비하여 23%, 10 년 전에 비하여 34%나 각각 축감된 수자이다. 지금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농촌 인구가 파산을 당하여 실업자 대렬을 보충하고 있으며 중 소 농장들은 날로 령세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잉여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파종 면적의 축소는 수확고를 감소시키고 있다.

1961 년도에 800만 헥타의 경지 면적이 축소된 결과 1962 년도의 소맥 수확고만 해도 10% 이상 감소되였다.

재정 및 금융면에서는 국가 및 개인 부채의 증가, 국가 예산에서의 방대한 적자, 급속한 금 류출, 증권 시장에서의 빈번한 파동, 국제 수지에서의 적자 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개인 부채 총액은 1960 년에 8,829억 딸라였고 1961년에 9,326억 딸라였는데 벌써 1962년에는 1만억 딸라를 돌파하였다. 그 중 련방 정부의 부채액은 1960년에 2,410억 딸라, 1961년에 2,481억 딸라, 1962년 2월에 2,974억 딸라, 같은 해 8월에 3천억 딸라 선을 돌파하여 금년 초에는 3,040억 딸라로 되였다.

외관상 견고한듯 하나 사실 상 무능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특히 적자 예산의 급속한 증가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이래 세 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꾸몄는데 그의 예산의 적자는 1961～1962 회계 년도에 63억 딸라, 1962～1963 회계 년도에 88억 딸라, 1963～1964 회계 년도에 119억 딸라에 달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금 보유량의 급속한 축감이다. 1961 년에 금의 해외 류출액은 8억 5,700만 딸라였는데 1962년의 류출액은 10억 딸라로 뛰여 올라 갔다. 1948년에 자본주의 세계 금 보유량의 71%를 점유하였던 미국은 오늘날 불과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의 모든 부문이 침체 몰락되고 있는 사정, 특히 재정, 금융면에서의 심각한 위기는 미국 지배층들에게 사실 상 경기 회복을 위한 인공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물질적 지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미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

다도 무능력하고 취약해진 조건에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특징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현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충분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생산 시설의 조업률이 극심하게 저하됨으로써 생산 능력을 충분히 리용해 낼 만한 힘이 미약한 데서 표현되고 있다. 전반적인 공업에서의 조업 시간은 제 3 차 대위기 시기보다도 더욱 심각한 국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강철 공업에서는 조업률이 60% 수준에서 계속 답보하면서 때로는 50% 이하에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화학 공업, 세멘트 공업, 알미늄 공업에서 계속 80%의 조업률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였다. 《위험한》 이 상태는 더욱 심화되여 1951년 이후 10 여 년간에 가공 공업에서의 조업률은 94%로부터 76%로 저하되였다. 즉 전반적 생산 시설의 4 분의 1이 전혀 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실업자 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위기들에서는 실업 비률이 위기의 최하점에서 6% 정도였는데 현 위기에서는 위기가 채 진전되기 전부터 7%라는 높은 실업 비률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실업자 총수는 550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업률 계산에서 미국 련방 준비국은 총 로동 가능자 수에다 1,100만의 중 소 기업가들과 고정 수입이 없는 가정 로동자들까지 합산하거나 실업자 수에서 수 주일 간에 2～3 시간만 《직업을 가지는》 방대한 실업자들을 제외하고 있다. 《내슈널 가디언》지와 같은 미국 출판물들이 현재 미국의 완전 실업자 수를 700 여만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다. 미국 상원 의원 더글라스의 계산은 공식적인 실업률이 7%일 때 사실 상의 실업률이 10%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현재의 실지 실업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케네디 자신도 실업 문제는 미국에서 《첫째 가는 경제 문제》이며 《1930 년대의 미국 불경기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실업 문제의 엄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가오는 위기, 시작되고 있는 위기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무능력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다음으로 경제 위기의 심각성, 파국성을 조건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인위적 조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사실이다.

미제는 위기에서의 유일한 출로를 우선 전쟁 및 대외 팽창의 강화,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낡은 정책을 통한 군비 확장, 군수 공업의 발전 그리고 군수 공업과 관련된 주문의 증대로써는 자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자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중한 경제적 파국을 초래케 할 것이다.

최근 시기 구라파에서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위신과 경제적 지위, 극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파의 사이에서의 알륵, 그리고 급격히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미제에 대한 배척은 미제의 대외 정책에서 심대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50%의 일률적인 일괄 관세 인하를 실시함으로써 서구라파 지역에 대한 무역의 장벽을 없애자는 케네디의 특사 허터의 제안이 구라파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한 사실은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카리브해 위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일정한 자극적 요소로는 되였으나 그것 역시 군수 공업에만 국한된 것이고 기타 경제 부문들에는 오히려 해독적 작용으로 되였다. 케네디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재정 활동을 강화하여 군수 공업 투자를 비롯한 일부 투자를 장려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더 방대한 군사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투자 장려 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케네디 정부가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들에 대하여 말할 때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새해에 제기된 3년 기한으로 되는 135억 딸라의 감세안이다. 우선 이 감세는 예산 적자를 벌써부터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정부 지출을 축감하라는 강한 요구를 폭발시켰다. 또한 이 감세 조치가 투자를 증대시키리라는 담보는 없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종전에도 이러저러한 감세가 9차나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 중 5차의 감세는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지 못하였으며 3차의 감세는 경제 쇠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쓰고 있다.

방대한 군사비의 증대, 감세 조치 등 미국 지배층이 취한 《대책》은 재정 위기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국제 수지에서의 역차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뉴욕 타임스》지가 케네디는 《미국 경제를 추동시키는 것이 2년 전보다 더 곤난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쓴 것은 우연하지 않다.

* *

2차 대전 후 여러 차례의 파동을 겪으면서 더욱 심각화되여 온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은 폭발적인 대위기를 통해서 상대적인 안정을 회복해야 할 절박한 상태에 직면하였으며 세계적인 범위에서 그러한 정세가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책》은 없으며 어떠한 인공적 《자극》이나 《대책》으로써도 경제의 파국 상태를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 지배층의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가 로골화되면 될수록 경제적 모순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미국 경제를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몰아 넣을 것이다.

씨나리오의 형상성 제고를 위하여

리 종 순

영화 예술은 씨나리오 문학의 발전과 가장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다.

최근 년간 우리 작가들은 천리마적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갈매기호 청년들》, 《분계선 마을에서》, 《붉은 선동원》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씨나리오의 성과작들을 창작함으로써 사상 예술적으로 질이 높은 영화 작품들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러한 영화들은 오늘 수백만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정서 교양의 강유력한 수단으로, 《충실한 선동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대중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씨나리오 작가들은 이러한 성과에 결코 자만할 수 없으며 답보할 수 없다. 일부 씨나리오 작품들은 그 질이 낮음으로 하여 당의 기대와 인민의 미학적 요구에 수응하지 못 하고 있다.

혁신과 기적으로 들끓고 있는 천리마의 현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과 도덕적 풍모에서 바야흐로 일대 비약이 일어 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영화 예술의 가일층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민의 미학적 요구도 더욱 높아졌는바 그들은 감동적으로 보고 배우며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영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려면 씨나리오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부 미학 실천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최근에 주신 일련의 교시들에서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영화 예술의 보다 급속한·개화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의 사상 예술적 기초인 씨나리오의 창작에 력량을 집중하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영화 작품의 현대성 구현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학적 요구와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 데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씨나리오 작가 및 영화 예술가들은 당과 수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례 없는 창작적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

씨나리오 문학도 다른 모든 문학과 마찬가지로 높은 형상성을 떠나서 작품의 생명인 사상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형상성이 저렬한 씨나리오에 기초하여 제작된 영화 작품은 근로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상 교양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 할 것은 론의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형상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대성 문제도 원만하게 구현할 수 없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미학적 요구와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 수도 없다. 천리마 시대 인간들의 사상 감정과 미학적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의의 있는 주제를 그렇듯 생동하게 구현할 수 있는 형상력을 소유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충만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씨나리오 작품들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불타는 창조의 도가니를 거치지 못하고 생경하게 로출된 결과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며 지어는 어색한 장면들도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

심각한 사색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붓을 달리는 작가들은 흔히 작품 창작에서 사상성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요구를 일면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사상성이 항상 예술성과 결합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일부 영화 화면들에 등장하는 성공하지 못한 인물 형상들을 상기하여 보자. 그들은 요란스러운 전투와 전투 행위의 련속 속에서 장황하게 웨치는 것으로 정치적인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을 생산 행위에만 파묻히게 하고 수다스럽게 정치적 《웅변》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상성을 표명하려고 한다.

아마 이러한 씨나리오 작가들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현대적 미감을 리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작가들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산 활동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의 심오한 개방을 보여 주어야 하며 바로 그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긍정적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는 1930 년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형상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 씨나리오 및 영화 예술이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로 남아 있다.

새 생활, 새 력사 창조에 일떠 선 천리마 기수들은 위대한 우리 당이 열어 놓은 력사의 대로를 따라 천리 준마에 박차를 가하며 달려 나아가고 있는데 일부 우리 씨나리오들과 영화 화면에서는 약동하는 천리마의 기상도 시대 주인공들의 영웅적 성격과 깊은 지성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우리 영화 작품들이 시대 정신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시대 주인공들의 사상 성격을 높은 형상적 수준에서 창조하지 못 한 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우리 씨나리오 문학의 형상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심 고리는 인간 전형을 창조하는 데 있다. 바로 이 문제에 우리 씨나리오 작가들은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적지 않은 씨나리오들에서 그 인물들이 여러 갈래의 복잡한 사건 속에 뒤덮혀 그 진면모를 알아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작품에서는 그 작가의 사상 미학적 의도조차 살펴 보기 어렵다. 즉 하고저 하는 이야기는 많은데 알맹이가 없으며 따라서 작가의 독창적인 문제의 제기도 전달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가 명백해야 하지 않겠는가.

작가가 제기한 작품의 문제성은 그

작가의 독창적인 주제의 발견과 관련되며 그것은 시대와 생활, 인간에 대한 작가의 견해의 예술적 표현이다.

그리고 그 문제성은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천명되는 그 작품의 주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바꾸어 말하여 주인공들의 운명-인간 형상을 떠나서는 작품의 어떠한 문제성도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인간 성격을 창조할 줄 모르고 전형을 형상하지 못 할 때 그 작품은 아무러한 감동도 줄 수 없으며 작가의 정견도 보여 줄 수 없다.

그 어떠한 휘황한 사건으로써도 인간 성격을 대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낡은 기준과 독단으로써 산 현실을 재단하려는 도식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생활의 겉 현상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복사하려는 기록주의를 배격하는 리유도 주로는 그러한 경향들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기본 요구인 인간 정신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서 작가들을 물러 서게 하기 때문이다.

도식주의는 인간에게서 본래의 생동한 감정과 인간성을 거세하며 그의 피끓는 열정과 신념을 압살하고 대신 앙상한 개념의 뼈다귀를 이에 대치시킨다.

또한 잡다한 사실들의 진렬장을 펼쳐 놓음으로써 생활의 진실을 보지 못 하게 하는 기록주의는 전형화를 거부하고 인간 형상을 왜소하게 만든다.

씨나리오 《용해공》과 《청년 작업반장》은 도식주의, 기록주의적 경향을 발로시켜 긍정적 주인공의 형상을 왜소화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엔 허다한 사건들과 미담적 소재들이 라렬되여 있으나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은 살아 있지 않다. 그것은 실화적 소재들을 주인공의 성격 창조에 예술적으로 결합시키는 전형화 과정을 소재 라렬식 기록주의로 대치시킨 데서 초래된 것이다. 또한 그것은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 형상에 초점을 돌린 것이 아니라 소재의 인위적 료리에 골몰한 실무적 처리의 소산이다. 즉 제기한 문제성을 작가적 열정으로써 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극작술에 소재들을 틀어 맞추면서 문제성의 해명을 안가하게 처리한 데 있다.

이러한 씨나리오들에 창조된 영철, 영식(《용해공》), 만식(《청년 작업반장》) 등의 형상이 영화화 과정에서 생산 공정에 파묻히게 되여 더욱 생기를 잃게 된 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바로 씨나리오 작가가 영화 창조자들에게 긍정적 주인공의 성격 창조를 보다 부조해 줄 씨앗을 주지 못 한 것과 관련된다.

영철, 만식 등의 형상은 천리마 기수로서 시대의 주인공답게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적 기질과 발랄한 성격을 소유하지 못 한, 다분히 사건에 포로가 된 단순한 실무 일'군으로 되고 말았다. 특히 그들의 내면 세계를 선명하게 그려 내지 못 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훈, 아름다운 소행에 공감할 수 없다. 결국 이 작품들은 생활의 의의와 성격의 바탕, 나아가서 시대 정신을 투철하게 천명하지 못 하였는바 이는 심각한 창작적 교훈이다.

우리의 일부 씨나리오 작가들은 확실히 인간에 대하여, 인간을 위하여 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장편을 구상하는 소설가의 경우와

만찬가지로 생활과 인간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씨나리오 작가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 하면 씨나리오도 영화의 대본이기 전에 큰 형식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작가들은 청소한 우리 씨나리오 문학을 영화의 단순한 《대본》으로 내맡겼다. 그리하여 씨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문학으로서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도 영화적인 극적 조건에 부합시키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다.

우리 씨나리오 문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영화 화면에 훌륭한 인간 형상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현상이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코 현실의 훌륭한 사실이 씨나리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낳은 인간 성격의 창조가 씨나리오로 되는 것이다.

인민들은 우리 작품들에서 휘황한 사건보다도 심장이 고동치는 산 인간을 보려고 한다. 그들은 바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동한 형상 속에서 생활의 교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씨나리오 및 영화 《붉은 선동원》의 주인공 리 신자는 우리 천리마 시대가 낳은 우수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시대 정신을 체현한 리 신자의 형상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지와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넘치며 혁명적 랑만과 지향으로 들끓는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 성격적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이다.

그의 이러한 일반적 성격적 특징은 바로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적인 특징과 예술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그의 형상을 더욱 빛내인다.

농촌 처녀의 소박성과 외유내강한 성품, 말보다 행동을 더 귀중히 여기는 실천가로서의 혁명적 기질을 소유한 리 신자의 성격은 얼마나 매혹적인가!

주인공-리 신자의 형상에는 청산리 정신과 인간 개조 사업의 위대한 생활력이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인민의 투지와 지향, 혁명적 랑만성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아무러한 신기한 이야기'거리도 없으며 이렇다 할 큰 사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모든 사업에서 농장원들의 모범이 되며 뒤떨어진 반원들을 성의껏 도와 주려는 처녀 선동원의 열정과 고민을 함께 느끼며 그의 강의한 의지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탄복하고 공감한다.

《붉은 선동원》의 작가는 주인공의 원형인 리 신자를 찾아서 그의 마을에서 오래 생활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의 생활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

생활에 대한 지식은 작가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작가가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되여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완전한 광채와 심도를 얻게 된다.

생활에 대한 긍정,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에 대한 사랑은 이 신진 작가에게 빛나는 재능을 갖다 주었다.

작가의 이와 같은 재능을 기초로 한 연출가와 배우들도 창조적인 환상의 날개를 마음 대로 펼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코 단순한 재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붉은 선동원》은 바로 생활에 대한,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우리 천리마 시대 인도주의의 초석으로 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비쳐진 서정-서사시의 영웅적 화폭이다.

우리 씨나리오 작가들은 이러한 경험에 립각하여 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 정신을 갖고 인간 형상을 자기 작품의 한 복판에 튼튼히 들여 세움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씨나리오 문학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또 중요하게 이야기되여야 할 것은 작가들이 예술적 기교를 습득하는 문제이다.

씨나리오는 소설도 시도 희곡도 아닌 자기의 특성을 가진 문학인 동시에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화면에 재현될 영화의 대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씨나리오 작가들은 왕왕 일반 문학적인 사고를 갖고 사물 현상에 대하며 집필에 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씨나리오 문학의 생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자기의 문학적 구상을 영화 예술적으로 보여 주는 재능—즉 풍부한 영화 예술의 가능성들을 씨나리오 주제의 실현에 백방으로 리용하는 솜씨를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영화 예술의 특성 일면에 치우치고 생활 반영의 진실성을 망각할 때 도식주의의 변종인 형식주의가 산생된다는 사실이다.

씨나리오 및 영화 《새 언덕 우에서》, 《산울림》은 부분적으로 영화 형상에서

형식을 위한 형식을 추구하여 인간 성격의 진실성과 시대 정신의 본질을 놓쳐 버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영화적 형식, 다양한 수법, 기교에 매혹되여 영화적 형상의 가능성을 창작가들의 주관으로 외곡 활용할 때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씨나리오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형상성 제고에 대한 제 문제들의 리론 미학적인 해명이 요구됨은 물론 또한 그 주제 선택의 협애성이 극복되여야 하며 다양한 형식과 스찔의 작품들이 나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만 씨나리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즉 우리 시대의 인간들에 대하여, 인간을 위하여 작가들의 구상이 그곳에 집중되여야 하며 청소한 씨나리오 문학도 력사가 오랜 다른 문학들과 같이 인간학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저 했다.

씨나리오의 모체도 현실이다. 현실을 떠나서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우리 씨나리오 문학의 결함과 부족점들은 우리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이 높지 못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리 당은 작가들이 항상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 사상으로 자기를 무장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의 사고가 항상 당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자기 시대의 깊은 복판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그는 로동 계급이 희망하는 주제를 자기의 목소리

로써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못 한 경우, 즉 당적 신심이 부족하고 생활에 대한 열정이 회박할 때에는 결코 사상 미학적 주체가 확립되지 못 할 것이며 그에게서는 창조적 대담성이 생겨 날 수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예술적 환상의 날개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실과 유리되면서 진실을 보지 못 하게 되며 조만간 사실들을 기록하는 소심한 《복사생》으로 되거나 《재간'군》으로 밖에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씨나리오 《녀교원》의 창작적 교훈이 바로 이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시정되였으나 씨나리오에는 바로 작가의 현실에 대한 관조적인 형식적 태도와 불확고한 미학적 견해가 반영되였었다.

《녀교원》에서는 특히 수옥 교원이 장성하게 되는 계급적 및 사회적 바탕, 당적 령도의 사상이 명확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어느 사회에도 있을 수 있는 소재의 외형적인 기록으로 되고 말았다.

인위적인 갈등으로 인한 현실의 일부 외곡을 제쳐 놓고라도 수옥은 고립무원한 환경에서 홀로 고심 분투할 뿐만 아니라 어째서 그가 인민 교원의 영예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엇이 그에게 그런 힘을 안겨 주었는가에 대한 예술적 해명이 없다. 작품은 긍정적 주인공의 사회 계급적 바탕을 시대 정신의 높이에서 명확히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성 및 혁명적 랑만성 구현에 기여하지 못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철저한 계급적 립장, 확고한 정치적 식견을 소유하는 것이 작가들 앞에 제기된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작가들은 자기의 사상 의식이 녹쓸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사상 수양, 정치 리론 학습에 배가의 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씨나리오 작가들은 항상 당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확고한 당적 미학관으로 현실을 투철하게 관찰하여 시대 주인공들의 영웅적 성격을 예술적으로 천명함으로써만 인민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씨나리오의 현대성 구현 및 형상성 제고의 길이라는 것을 재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실존주의 문학의 본질

김 해 균

부르죠아 퇴폐 문학의 한개 류파인 실존주의 문학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과 남조선을 포함하여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 널리 류포되여 현재 세계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지배적인 조류를 이루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은 멸망하는 부르죠아 계급의 반동 사상의 로골적인 선전자이며, 선진 계급의 리익을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의 흉악한 원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 온갖 부르죠아 반동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현 시기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최근 년간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동 문학에서 문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인간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고취한 것 들이며 인간의 병'적 의식과 그 속에 비친 비정상적이며 불합리한 세계 즉 《실존》 세계를 묘사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표현하고 있으며 절망과 허무를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절대 다수가 실존주의 작품들이다.

이러한 실존주의 작품들을 부르죠아 반동 문학가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심각한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인류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 주는 문학》이니, 《락관 세계를 건설하는 문학》이니, 《문학의 전반적 혁명》이니 하고 떠들어 대면서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주장과는 반대로 실존주의 문학은 사람들을 불안과 절망의 세계로 몰아 넣음으로써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추악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이며 부르죠아 문학이 극도로 부패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에 불과하다.

실존주의 문학은 파멸에 직면하여 절망에 몸부림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다. 벌써 20 세기 초엽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더불어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의 무력함과 사회적 파산을 감촉하고 자기 멸망에 대한 《비극 의식》에 사로잡혔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가일층 격화되자 부르죠아지는 력사의 일정에 오른 자기의 파멸 앞에서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의 부르죠아지는 상징주의 문학의 상징의 세계나 초현실주의 문학의 초현실 속에로 도피하는 것으로써만은 무섭게 설레이는 자기들의 마음을 가라 앉힐 수 없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오늘의 기분과 감정을 가장 비위에 맞게 반영하고 있는 실존주의 문학에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실존주의 작가 카프카의 작품 《심판》은 불안과 악몽 속에서 명백한 자기 죄명도 모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형상을 통하여 20 세기 초엽의 신음하는 부르죠아지의 기분을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샀다. 오늘 싸르트르와 까뮤를 비롯한 실존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부르죠아지가 그렇게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현실을 극도로 외곡하면서 반동적인 실존주의 철학을 로골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덴마크의 반동 철학자 케르케골은 《전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라고 말하였으며 야스퍼스는 《생명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절대적인 것》이 《실존》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은 《실존》하는 것은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정신 생활》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 현실과 사회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거부하고 인간 리성을 부인하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부정한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을 아무런 희망도 리상도 없는 존재로 보면서 고독과 불안, 절망과 허무, 공포와 죽음을 부르짖는 한편 무제한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회 도덕적 규범을 부정하고 철저한 개인 리기주의와 무정부적인 방종과 관능적인 향락, 인간 증오 사상을 례찬하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이 히틀러와 뭇소리니의 파쑈 《철학》의 기초로 되였던 것은 우연하지 않다. 결국 실존주의 철학은 부르죠아지의 전반적인 야성화, 야수화 및 절망의 시대의 부르죠아 철학의 주관적 관념론의 한 개 류파이다.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을 자기들의 미학적 신조로 삼고 있는 실존주의 작가들은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른 부르죠아 퇴폐 문학 류파들과는 달리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 문학》의 탈을 벗어 던지고 공공연하게 문학이 철학의 완전한 종속물이라고 주장한다.

례를 들어 불란서의 반동 철학가이며 반동 작가인 까뮤는 문학이란 《때때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철학의 귀결이며 그 철학의 빛이고 그 철학의 완성》(《시지프의 신화》)이라고 쓰고 있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철학적 설교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의 형상적 기능을 말살하고 있다. 마치도 서투른 화가가 자기 그림에 기다란 설명서를 붙이는 것과 같이 실존주의 작가들은 자기들의 《리상》을 예술적 화폭으로써 보여 줄 대신에 장황한 철학적 설교를 늘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은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실존주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철학적 잡문에 불과하다.

또한 실존주의 작가들은 객관적 세계는 아무런 합법칙성도 가지지 못 하는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이며 문학은 이러한 불합리한 세계와 충돌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 나가는 인간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까뮤는 이러한 의미에서 작품은 《무의미한 것을 표상으로 뒤덮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 작가들은 문학을 한낱 불합리한 철학을 선전하거나 또는 무의미한 것을 표현하는 잡표대로 봄으로써 객관적 현실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의 인식 교양적 기능을 말살하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의 기본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객관적 현실에서 떼여 내여 순전히 주관적인 병'적 의식 세계 즉 《실존 세계》로 끌고 들어 가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존주의 작가들이 즐겨 선택하는 주제는 불안과 절망과 죽음이다.

불안과 절망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실존주의 문학은 몰락하는 계급의 불안과 절망을 전 인류의 불안과 절망으로 묘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로 인민들로 하여금 부르죠아지의 멸망이 전 인류의 멸망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보지 못 하게 하고 다만 절망의 시궁창 속에 빠져 사회의 진보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는 데 그 흉악한 반동적 본질이 있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불안, 절망, 죽음을 례찬하는 자기들의 작품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실존주의 사상을 각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데 싸르트르는 《인간 생활의 무의미성》을, 마르로는 《인간 조건》을, 까뮤는 《부조리》를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다 같이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인식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죽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절망적인 인생관을 표현한 것 들이다.

까뮤는 《부조리의 벽》이라는 론문에서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가 그 자체에 있어서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은 《장님이며, 귀머거리여서 어둠 속에서 나와 자기 운명을 하나도 리해함이 없이 다시금 어둠 속으로 돌아 가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부조리》를 체현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는 까뮤의 소설 《이방인》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회사 사무원 뫼르소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인간 존재의 허무함과 세계의 《부조리》를 깨닫고 극도의 혼란과 절망에 빠진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이 세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낯선 타국 사람, 즉 이방인으로 느낀다. 《부조리》를 깨닫지 못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허위적이며 비렬한 인간들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반발하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분풀이로 란잡한 치정 세계에 빠져 마침내 살인죄를 범하고 체포되여 형무소에서 사형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범죄가 《부조리》를 반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새 생활과 평화와 상쾌감을 느끼면서 《나는 아주 완전히 다시 살아 난 것 같이 생각되였다》라고 부르짖는다.

싸르트르의 처녀작 《구역질》의 주인공은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을 깨닫는

순간 세계는 그의 의식 속에서 《괴물같이, 말랑말랑하고 무섭고 더러운 음탕한 벌거숭이》로 변모하며 불안과 절망으로 하여 구역질을 한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 작가들은 병'적인 의식을 묘사하면서 마치도 과실 알맹이로 파들어 가는 벌레와 같이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좀먹어 들어 가려고 발악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계급들에 대하여 1910년에 레닌은 《절망은 멸망해 가는 계급들에만 고유한 것이다…절망은 악의 원인을 리해하지 못 하며 출구를 보지 못 하며 투쟁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현대 산업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러한 계급에는 속하지 않는다.》(레닌 전집 16권, 419 페지)고 쓰면서 불안과 절망의 계급적 본질을 천명하였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무의미성》, 《부조리》 등을 들고 나와 사람들을 불안과 절망과 죽음 속에 몰아 넣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절망으로부터의 출로를 관능적인 향락, 무정부적인 방종, 살인과 만행에서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계급의 성'적 방종과 온갖 범죄 행위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근로 인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케 하려고 책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문학의 주요한 주제는 또한 성'적 방종과 범죄 행위에 대한 례찬이다.

우리는 이미 까뮤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이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포자기 끝에 치정 관계에 빠지며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 성'적 방종과 범죄와 만행을 주제로 한 대표적 실례를 우리는 역시 까뮤의 희곡 《깔리굴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희곡의 주인공 깔리굴라 황제는 자기 애인이 죽자 인간은 죽어야만 하며 행복이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의식에 혼란이 일어 난 깔리굴라는 하늘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궁전을 탈출하여 헤매다가 진흙투성이가 되여 돌아 온다. 그는 모든 기성 도덕 관념을 파괴하고 세상의 정상적 운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살인, 간음을 자행하다가 마침내 왕비의 목을 눌러 죽인다. 궁신들이 반항하여 대들자 그는 《나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미친듯이 너털웃음을 웃는다.

작자는 행복과 영원을 념원하다가 《부조리》한 세계에 의하여 거부 당한 인간이 패덕과 란륜, 살인과 만행을 범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멸망하는 계급이 력사의 수레바퀴를 막아 보려고 시도하는 온갖 발악을 합리화하고 있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성'적 방종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 도덕적 규범을 거부하고 인간의 무제한한 《자유》를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운 탓으로 오히려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며 《자유 의사의 선택》에 의하여 살인도, 방화도, 온갖 만행도 자유롭게 감행할 권리가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는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무정부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실존주의 작가들이 무정부적인 방종과 관능적 향락을 사회에 대한 《반항》이니 《항거》니 하고 부르는 데로부터 부르조아 반동 평론은 실존주의 문학의 중심 주제가 《사회에 대한 반항》과 《인간 해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존주의 작가들이 말하고 있는 《반항》은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근로 인민들의 진정한 반항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자기의 불안과 절망을 망각하기 위한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까뮤 자신이 《운명에 압도될 것을 알면서도 반항한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반항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 작가들이 말하는 《반항》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멸망하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일 따름이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와 《반항》을 들고 인간 해방을 옹호하는 듯이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흉악한 《실존》의 독소로 근로자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 작가들의 《사회 참여》 즉 현실에의 접근을 운운한다.

싸르트르는 인간의 허무성을 극복하고 《비극 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하며, 《자유》와 《인간 해방》의 정신을 작품에서 체현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력사적 현실》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피압박 계급의 사회적 투쟁을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르조아 반동 문예 학자들과 일부 수정주의 평론가들은 싸르트르의 이러한 주장을 《절망과 불안 속에서도 철저한 행동을 부르짖는 새 인간 창조를 노리는 행동주의》이니, 《안간 발견의 인도주의》이니 하면서 떠들고 있다. 그러나 싸르트르가 말하는 《행동》이나 《사회 참여》는 어떠한 사회 도덕적 규범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순전히 개인적인 《자유 의사의 선택》에 의한 행동인 것이다. 이것은 피압박 계급의 목적 의식적인 행동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이다. 싸르트르가 인간에게는 다만 《출생, 로동, 사망》이 있을 뿐이며 《희망 없는 행동》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문학의 계급성과 당성을 완강히 반대하고 순수한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데서 그의 《행동주의》의 반동적 본질이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그의 《행동주의》와 《현실 참여》를 체현한 작품은 어떠한 것들인가. 불란서 인민들의 반파쑈 투쟁을 소재로 한 희곡 《파리》와 불란서 반동의 폭압하에서의 불란서 지하 당원의 투쟁을 취급한 《묘지 없는 죽은 사람들》은 인간의 비겁성, 비굴성을 과장하여 묘사하면서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와 뭇쏘리니에게 항거하는 영웅들을 죽음 앞에서 동요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작품 《승리자》는 빨찌산들이 고문 앞에 투항하여 자기들의 리상을 포기하며 동지를 증오하며 리기주의자로 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반파쑈 투사들과 빨찌산들을 모독 중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싸르트르의 《현실 참여》의 문학은 철저한 개인 리기주의를 고취하

며 인간 투쟁의 무익함을 선전하고 배신과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한 흉악한 반인민적, 반사실주의적 문학이다. 이러한 문학을 부르죠아 평론이 《락관 세계 건설의 하염없는 노력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주의 문학》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구역질을 일으킬 따름이다.

선진 계급의 리익을 표현하는 진보적 문학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존경심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심과 광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다 주며 부르죠아지의 파렴치하고 발광적인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을 지향하는 고상한 인도주의로 관통되여 있다.

이와는 반대로 멸망하는 계급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 실존주의 문학은 인간을 병'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고독과 불안에 흐느끼고 있는 절망적인 정신 이상자로, 개인의 리익을 위하여 성'적 방종과 살인 만행, 변절과 배신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변태 성욕자로, 야수로 묘사하면서 인간 증오 사상을 로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존주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치욕에 찬 더러운 육체와 신념도, 리상도, 정열도 없는 애처러운 벌레들만이 우굴거리고 있다.

또한 실존주의 문학은 《허무》와 《부조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 추잡하고 답답하고 소름이 끼치는 장면을 즐겨 묘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써도 특징적이다.

실존주의 작가들은 이러한 묘사를 작가의 명석한 인간 정신을 거쳐 암담하고 답답한 세계를 작품 속에 《성실하게》 재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르죠아 반동 문학가들은 실존주의 문학이 현대 세계를 《혹독스러울 만치 여실하게》 그려 낸다 하여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높은 성실성을 가지고 인간의 량심 문제》를 취급했다 하여 까뮤는 몇 해전에 노벨상을 수여 받았으며 부르죠아 반동 평론은 그를 《폭풍우의 량심》이라고 격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존주의 작가들이 묘사하고 있는 추잡한 정황들은 절망적인 정신 착란자들의 혼탁한 정신에 의하여 날조된 주관적인 환상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실성》은 사실주의 문학의 《진실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특히 그들은 추잡한 색정 세계를 묘사하면서 마치도 그것이 자연주의 또는 프로이드주의 문학의 색정주의와는 달리 인간 문제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기 위한 것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자포자기 끝에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않으면서 한 녀자와 추잡한 색정 관계를 맺고 있는 중년 교원의 패덕적인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싸르트르의 《자유의 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정 세계의 묘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존주의 문학의 색정주의는 추악성과 저렬성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색정주의를 릉가하고 있으며 극도의 인간 증오, 변태적인 성'적 향락을 고취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의 반사실주의적 특징은 또한 그것이 선진 인류의 유구한 창작 과정에서 창조된 문학의 아름다운 형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는 사실주의 문학의 고상한 내용은 아름다운 형식에 의하여 더욱 빛난다.

그러나 실존주의 작가들은 작가의 목적이 인물의 성격, 심리 묘사나 작품의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국적인 모습을 파내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슈제트도, 사건도 없는 순전히 병'적 의식의 변화를 무질서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상징, 비유, 암호로 작품을 충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극도로 문학의 형식을 파괴하고 있는 실존주의 문학에 대하여 부르죠아 반동 평론은 그러한 수법이 작품을 더한층 완전하고 생생하게 만들고 있다고 황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찌기 체르늬쉡쓰끼가 《사상이 허위적인 것이라면 예술성에 관하여 론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실존주의의 잠꼬대를 늘어 놓고 있는 문학에 대하여 그 어떠한 형식이나 예술성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이다.

* *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은 한 마디로 불안과 절망과 죽음을 고취함으로써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켜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며, 사람들을 관능적인 향락과 범죄의 시궁창 속에 몰아 넣으며, 개인리기주의, 인간 증오 사상과 변절과 배신을 선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이 자기의 반인민성과 반사실주의적 본성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자유》, 《해방》, 《인도주의》, 《사회 참여》, 《성실성》 등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데 그 흉악한 허위성과 악랄성이 있다.

실존주의 문학의 해독성은 다만 그 자체의 반동적 본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기 거의 모든 부르죠아 퇴폐 문학 류파들을 실존주의 독소로 오염시킴으로써 그것들의 반동성을 더욱 흉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데서도 표현된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카프카, 싸르트르, 까뮤의 작품들이 번역되여 광범히 류포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모더니즘 문학은 실존주의 문학과 완전히 야합하고 있다.

미국의 젊은 반동 문학가들로 구성된 《두들겨 맞은 세대파》 문학은 《무목적한 생활을 위한 생활》을 부르짖으며 관능의 해방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을 《20세기의 성스러운 야만인》으로 자처하고 절망과 허무, 색정과 방종을 례찬하는 작품들을 쓰고 있으며, 영국의 《성난 청년파》 작가들은 세상이 따분함을 한탄하고 기성적인 모든 규범에 반항할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반항의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악명 높은 티. 에스. 엘리오트를 중심으로 한 반동 작가들은 인간을 《죄악의 용기》로, 세계를 절망 속에 빠진 《큰 암실》로 묘사하고 있으며 원자 전쟁에 의한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련의 《원자 유토피아 작품》이라는 것들을 써내면서 허무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의 한 반동 평론가는 현재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미국 문학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이 실존주의 문학에서 배울 것을 미국 작가

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실존주의 문학이 부르죠아 반동 퇴폐 문학 가운데서도 미제의 침략 정책을 합리화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는 데 가장 편리한 사상적 도구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 정책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이후 시기에 실존주의 문학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 들여 광범히 류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실존주의 문학은 남조선에서도 부르죠아 반동 문학의 지배적인 조류를 이루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허무와 란륜과 패덕, 온갖 범죄 행위를 고취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매족적 행위를 위한 길을 닦아 주고 있다.

철두철미 반인민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실존주의 문학은 림종하는 부르죠아지의 구슬픈 신음 소리이며 썩어 가는 시체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이다.

실존주의가 모든 건전한 사람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는 것을 안 까뮤는 자기 자신이 실존주의자임을 처음부터 부인했거니와 공공연하게 실존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던 실존주의 작가들도 오늘 자기들의 반동적 본질과 허위성의 밑'바닥이 드러나자 많은 경우에 실존주의의 간판을 떼고 형형색색의 이름을 번갈아 붙여 가면서 음흉한 책동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온갖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절망 속에 근로 인민들을 끌어 넣으려 한다 할지라도, 제아무리 단말마적으로 자기들의 도덕적 부패 타락과 만행을 정당화하며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책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헛된 시도에 불과 하다. 그것은 오늘 혁명적 랑만으로 나래치는 근로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 세계에는 실존주의 문학의 독소가 숨어 들 추호의 공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모순이 빚어 낸 비참한 사회 현실에서 출로를 찾지 못 하고 헤매이는 일부 인테리들과 혁명에 권태를 느끼고 미국식 생활 양식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존주의는 강한 전염성을 가진 위험한 독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존주의 문학의 흉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근로 인민들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고무 추동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당성을 고수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민은 기민이다》

김 호

오늘 남조선에서 군사 《정권》은 《해외 이민》을 중요한 사회 경제적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해외 이주 5 개년 계획》이란 것을 꾸며 내고 벌써 작년 말에 브라질 방면으로 제 1 차 《이민》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들어와서 더 많은 《이민》을 조직하려고 《이민 대상국》과 교섭을 서두르고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앞으로 《5 개년 계획》 기간에 브라질 외에 파라괘, 니카라과 등 중, 남미 제국과 말라이, 보르네오 등 동남 아세아 지역에 2만 세대 이상의 동포들을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괴뢰 정부는 이미 《해외 이주법》을 채택하였고 괴뢰 보건 사회부 내에는 《이민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주자의 호집과 알선 및 심의를 전담한다는 《해외 이주 심의 위원회》와 《한국 개발 주식 회사》까지 만들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오래 전부터 외국 노예주들과 흥정해 오던 《이민》 책동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 섰다.

군사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의 반영이다.

물에 빠진 자가 짚오라기라도 붙잡는 격으로 군사 《정권》은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실업자의 격증,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이민》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려 하고 있다.

＊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서 감행되고 있는 《이민》 사업은 중세기적 노예 매매의 재판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은 《이민》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사실상 인신 매매를 통하여 막대한 치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위정자들은 《이민》을 통하여 단순한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요하게는 파쑈 테로 통치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모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 괴뢰들은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고를 해결》한다고 요란스럽게 선전하여 왔다. 그러나 2 년이 경과한 오늘, 경제는 재건된 것이 아니라 더욱 파탄되였고, 민생고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가일층 악화되였다. 실업자는 격증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는 무서운 기근이 휩쓸고 있다.

실업자, 리농민, 괴뢰군 제대자를 비롯한 남조선 사회에서 버림 받고 천대 받는 최하층 주민의 처지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앉아서 굶어 죽느냐, 싸워서 목숨을 건지느냐 하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그 어떤 팔자의 탓이 아니라 바로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치와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의 매국 배족적인 정책이 빚어 낸 후과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 속에서 반미 반《정부》 기세가 점차 높아 가고 있으며 통치배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온 분자》로 화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에서 극도로 당황한 위정자들은 반미 반《정부》 감정이 강한 실업자, 리농민, 괴뢰군 제대자들을 집단적으로 《이민》의 방법으로 처리하

는 것을 상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 위정자들은 《이민》을 통하여 값눅은 로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이민 대상국》들로부터 대외적 지지를 얻어 저들의 추락된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다.

소위 해외 이주법 1조에는 《한국 국민의 해외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정책의 적정을…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시킨다고 씌여 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이민 정책》에서 노리는 목적은 대략 이러하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이민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간교한 술책을 다 쓰고 있다.

그들은 말사스의 인구론을 류포시키면서 소위 과잉 인구의 해결책으로 《이민》의 불가피성을 설교하고 있다.

말사스의 신봉자들은 남조선에서의 경제적 파국과 빈궁의 근원이 마치도 《비상히 증식되고 있는 인구 대 생활 자료의 균형의 파괴》에서 오는듯이 묘사하면서 이러한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피임, 타태, 정관(精管) 수술 등 산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적정 가족 계획》과 함께 남조선 근로자들을 해외에 이주시키는 방법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산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 계획》을 《재건 국민 운동》의 중심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남미주와 동남 아세아 등지의 농장주들과 자본가들에게 동포들을 종신 노예로 팔아 먹기 위한 《이민》 사업을 괴뢰 정부의 주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학과 력사에 의하여 이미 론박되고 분쇄된 말사스 인구론이 철두철미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복무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인구의 증가가 결코 남조선 경제의 파국과 빈궁의 근원으로 될 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적 파국과 민생고의 근원이 《과잉 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가 18 년간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남조선을 군사 기지로, 원료 략탈지로, 잉여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킨 데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또한 《이민》으로 가면 《일획 천금》(一獲千金)을 할 수 있고 얼마 안 가서 《농원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등 감언리설로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민》들에게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미국 《대륙 식민 회사》의 괴염에 빠져 미주 일대에 이주민으로 끌려 갔던 1천 100 여 명의 동포들이 부산항을 떠난 순간부터 얼마나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고역에 시달리다가 이국 땅에서 조국 산천을 그리며 피눈물을 머금고 죽어 갔는가를 잘 알고 있다.

오늘 군사 《정권》이 《이민 대상지》로 삼고 있는 브라질은 결코 《살기 좋은 지대》가 아니다.

브라질은 열대 우림(雨林)지대로서 중세기적 지배와 착취가 자행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이 나라는 우선 기후 풍토 조건이 우리 동포들의 생활에 부 적당한 곳이다.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이주지로 선정되고 있는 아마존강 류역 개척지는 년중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내외에 달하는 무더운 열대 우림 지대다. 그 곳에서는 특유한 황열병과 마라리야가 사시장철 류행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로 빼앗아 가고 있다. 략탈만 일삼는 농장주들은 이 지대에 보건 시설 하나 갖추어 놓지 않고 있다. 만일 전염병에 걸려 오래 동안 병석에 누워 있게 되면 농장주들은 환자를 무인지경으로 내버린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까지도 《브라질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무서운 각종 풍토병이라고 할까 하여간 병을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고 쓰고 있다.

브라질은 농노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주민의 3%에 불과한 대지주가 전체 토지의 3 분의 2를 차지하고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장주와 교형리들의 박해를 받아 가면서 불 같이 타는 해'빛 아래에서 우마와 같이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적 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농업 생산은 년년 감소되고 있다. 지금 주되는 생산물인 커피는 2 차 대전 전에 비하여 75%로, 코코아는 65%로, 고무는 무려 5%로 각각 감소되였다. 브라질 주민의 주식인 소맥은 매년 6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본토 주민들 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포르탈레자시에서는 1959년 1월, 며칠 동안에 어린이들만도 근 400 명이 굶어 죽였다. 특히 《이민》으로 이주한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과 박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다.

브라질에 《이민》으로 가서 신세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작년 말에 끌려 간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브라질에 팔려 간 우리 동포들은 지금 그 곳에서 오도가도 못 하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까지만 하여도 소위 《이민 수용소》조차 설치되지 않아 그들은 집도 땅도 없이 《난민 수용소》에 감금되여 모진 기아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 학대, 굴욕을 강요 당하고 있다.

《이민》으로 끌려 간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막상 브라질에 상륙하여 보니 정착지의 토지 구분은커녕 림시 수용소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정착 예정지는 토지 소유권조차 확정되지 않아 분쟁이 있는 것으로 전하여지고 그 토지 자체도 황무지라서 개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중에 있는 땅이라면 마음 놓고 개간할 수도 없는 일이며 토질이 형편 없이 나쁜 황무지라면 산을 갈아 밭을 만드는 격이여서 언제 생계를 세울 수 있겠는지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동아 일보》 1963. 2. 15)

실로 그들은 《이민》으로 가서 《일획 천금》을 했거나 《농원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있던 가재 도구마저 처분하고 알거지가 된 채 포로와 다름 없는 수용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사태는 이와 같이 엄중한데 박 정희 도당은 온갖 허위 선전과 강압으로 남조선 주민들을 브라질의 정글 속에까지 밀어 넣고도 오늘에 와서는 《정부가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들의 매족적인 죄행에 대하여 발뺌을 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민》의 첫 출발부터가 이러할진대 앞으로 계속 《이민》으로 끌려 가게 될 수 많은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군사 파쑈 도당이야말로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며 매국 매족의 무리이다.

그들의 안중에는 조국도 인민도 없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식민지 테로 통치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국을 팔아 먹는 것도, 동족을 노예주의 제물로 제공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도탄 속에 신음하며 노예로 팔려 가는 동포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그들을 수만리 떨어진 이국 땅에 팔아 먹을 것이 아니라 제 나라 제 땅인 북반부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살'길을 찾아 북반부로 넘어 오는 동포들을 따뜻이 받아 줄 데 대한 조치를 오래 전부터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위정자들의 방해 책동

으로 말미암아 남녘 형제들은 종신 노예로 외국에 팔려 가면서도 행복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북반부로 넘어 오지 못 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확고히 다져졌으며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 형제들을 맞아 들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날 일본에서 고생하던 8만 여 명의 동포들도 이미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재일 동포들은 계속 조국으로 돌아 오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의 탐욕의 희생이 되여 수만리 지역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야 하며 미주 농장주들의 민족적 멸시와 가혹한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여야 하겠는가.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이를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이민》 흉책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이민은 기민(棄民)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박 정희의 매족 행위에 항거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들의 반항 기세를 반영하여 최근 남조선 출판물에는 매족적인 《이민 정책》을 폭로하는 글들이 자주 실리고 있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는 《동포를 이국 땅에 버리게 한 책임은 어디 있는가》고 군사 《정권》에 문책하면서 《이민에 협조한다는 것은 말 뿐이고 처음부터 협잡성이 개입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매일 신문》도 《우리의 이민사는 쫓겨 가는 이민이요, 망국의 기민사》라고 하면서 《이민》의 죄악상을 폭로 규탄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어떠한 박해, 어떠한 위협이 가해지더라도 그에 굴하지 말고 원쑤들의 《이민》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완강히 싸워야 한다.

오늘 박 정희 도당으로 하여금 범죄적 《이민》을 강행하도록 사촉하고 있는 자는 바로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며 수백년 전부터 남북 미주에의 노예 매매로 치부해 온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와 언제 노예로 팔려 갈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군사 테로 통치를 쓸어 엎기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문답 학습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와 로임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과 로동자들의 로임 장성 간에는 호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생산을 장성시키는 기본 요인으로 되며 국민 소득 중에서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로임 폰드를 증대시키기 위한 결정적 담보로 된다. 로동 생산 능률이 체계적으로 장성하는 조건에서만 매 로동자들에게 직접 분배되는 몫인 로임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이 로임 장성의 결정적 담보이라면 옳은 로임 조직, 로임의 계통적 장성은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되며 생산력 발전,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적극적 영향을 준다. 로임 조직이 잘 되고 로임이 계통적으로 장성할 때 생산 발전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은 고도로 높아지며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과 로임 장성의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 생활을 조직함에 있어서나 매개 공장, 기업소의 경리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와 평균 로임의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와 로임 장성 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보자.

한 마디로 말한다면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는 로동자들의 평균 로임의 장성 속도에 비하여 앞서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가 더 빠르고 그에 뒤따라서 로동자들의 평균 로임이 장성되여야만 공장, 기업소 경리 운영 혹은 국가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잘 펴일 수 있으며 생산과 인민 생활이 계통적으로 급속히 장성할 수 있다. 반대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에 비하여 로임의 장성 속도가 더 빠른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질 수 있지만 부단히 인민의 물질 문화적 복리가 향상될 수 없다.

왜 그런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라 하면 단위 시간 이를테면 한 시간 또는 하루에 로동자가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한다

는 것 즉 단위 시간 내 1 인당 생산량이 장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여진다.

첫째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생산 수단을 보상하는 부분과 둘째로, 개인의 몫으로 직접 분배되는 부분 세째로, 전체 사회를 위하여 돌려지는 부분들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물 중 첫째 부분의 비중이 커지며 그리고 또한 세째 부분이 장성해야 확대 재생산을 위한 축적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 사회적 소비에 돌려지는 몫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그런만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즉 단위 시간 내 1 인당 생산량이 장성하는 속도보다 그 중에서 직접 그들의 개인의 몫으로 나뉘여지는 몫인 로임이 더 빨리 증대된다면 결국 전체 생산물 중에서 확대 재생산을 위한 축적과 전 사회적인 소비를 위하여 돌려지는 부분의 비중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제 시책을 실시하는 데 적지 않은 저해를 주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 없다.

이와 같이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더욱더 유족하게 만들자면 해당 시기 로동자들이 생산하는 량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성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가 평균 로임의 장성 속도에 비하여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은 자기 초소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이 량자 간의 호상 관계를 분석하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의 옳은 균형을 부단히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량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공업 기업소 현행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계획 수행률을 대비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전년 동기와 대비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보자.

문천 기계 공장에서의 1963 년도 1.4 분기 로동 생산 능률 및 평균 로임 장성 속도를 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획 대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로동 생산 능률	108.3	136.1
평균 로임	105.7	120.3

보는 바와 같이 이 공장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와 로임의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계획 대 실적의 대비에서나 전년 동기간과의대비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가 보다 빠르며 로동자들의 평균 로임도 큰 간격 없이 확고하게 장성하고 있다.

우의 통계표에서 본다면 첫 번째 방법은 문천 기계 공장의 1.4 분기 로동 생산 능률 계획 대 실적인 108.3%와 평균 로임 계획 대 실적인 105.7%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매월, 분기마다 계획 대 실적을 정상적으로 대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 간의 균형 관계가 계획에 예견된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때에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균형 관계가 유지되지 못 할 때는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결함이 있고 계획에 예견된 어떤 대책이 보장되지 못 하였는가를 찾아 내고 제때에 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공장의 전년도 1.4 분기 로동 생산 능률 실적에 대한 금년 1.4 분기 장성 지표인 136.1%와 평균 로임 장성 지표인 120.3%를 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금년도 실적을 전년 동기 실적과 대비 분석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와 평균 로임의 장성 속도 간의 균형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였는가를 시기마다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 로동 생산 능률·장성 속도와 로임 장성 속도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인들을 찾아 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높은 장성 속도와 그것들 간의 정상적이며 옳은 균형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상 두 가지 방법을 잘 배합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량자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선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이며 임금 장성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일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로력자 수를 늘구어 생산을 장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때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극히 완만히 장성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로임의 장성 속도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보다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제 1 차적 관심을 돌리며 그를 통하여 생산의 확고한 장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이 장성하는 경우에도 로임 조직을 잘 하지 못하면 이 호상 관계에서 불균형이 조성될 수 있다. 그것은 로임이 상대적으로 초과 지출되는 데서 표현된다.

로임의 상대적 초과 지출이 초래되는 것은 주로 생산 계획의 수행 정도에 로임 지불이 상응되지 않는 데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로임은 계획 대로 지출되였다 하더라도 생산 계획이 수행되지 못 하였거나 또는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로임이 그보다 더 초과 지출되는 경우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량자의 옳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로임 장성이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을 릉가하지 않도록 로임 조직을 잘 하여야 한다.

로임 조직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 매개 직장, 작업반 등 생산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임의 규모를 잘 설정하는 문제이다. 로임의 규모는 항상 생산 계획과 정확히 련결시켜 설정하여야 하며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제반 요인들을 잘 타산한 기초에서 설정해야 한다.

또한 로임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도급제의 비중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로동 정량 사업을 잘 하는 문제이

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도급제에서는 생산량(또는 작업량)에 따라서 로임이 계산 지불되는 만큼 도급제를 옳게 도입하면 로임의 상대적 초과 지출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로동 정량을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정확히 제정하면 작업 기준량은 초과하면서도 생산 계획은 미달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없앨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원인에 의한 로임의 상대적 초과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이 발전하고 경리 운영이 복잡해지면 이러저러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이들의 균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매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그 원인에 따라 제때에 해당한 기술 경제적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성, 국 및 은행 기관들은 지도 통제 사업을 현지에 접근시키며 생산 및 로임 지불에 대한 통제를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 순 도

근로자 제 11 호 (루계 225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6월 5일　　인 쇄 • 1963년 6월 3일

ㄱ—330350　　값 40 전

당학습

잡지《당 학습》은 당 정책 학습반, 당원 강습 강사들의 사상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 제고 및 당면한 당 정책 학습 지도를 방조하기 위하여 발간한다.

《당 학습》은 학습 강사들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당 정책을 해설하며 혁명 전통 연구 자료들을 게재한다.

학습 강사들의 실무 수준 제고를 위하여 학습 지도 방법 개선에 대한 지도 론설들과 경험들을 소개한다.

또한 매개 학습반들에서 당면하여 취급하는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의 원리 학습, 혁명 전통 학습을 지도 방조하기 위하여 《학습 참고 자료》, 《보충 자료》, 직관물 기타 학습 지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게재한다.

이 외에도 잡지《당 학습》은 학습 강사들의 자체 학습과 당원들의 학습 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리론, 실무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지면을 통해서 해답과 지도를 준다.

잡지《당 학습》은 본사에서 발행한다.